



“돈키호테는 우리 안에 잠재된 본성”

《돈키호테》 국내 최초로 완역 번역은 마음의 폐쇄성을 허무는 데서 출발

돈키호테. 예측할 수 없는, 좌충우돌하는, 한마디로 광인(狂人)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독자들이 많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돈키호테의 진면목을 옹골게 아는 사람 또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을 인정해야 할 듯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철 총장의 안타까움은 이 대목에서 비롯된다.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그는 20여 년 강단을 지키며 스페인어와 스페인 문학을 가르쳐온 학자로서 돈키호테에 대한 그런 '몰이해'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한국인들, 돈키호테 제대로 아는 이 드물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이 일제시대죠. 풍차에 달려드는 돈키호테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미친 사람 혹은 정신병자로 이해한 거죠. 한번 잘못된 인식은 그것이 거의 영구적으로 지속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돈키호테는 아직도 우리에게 잘못 인식되고 있어요.”

박철 총장의 《돈키호테》에 대한 애정은 세르반테스 문학 세계에 대한 동경과 맞닿아 있다. 한국외대 스페인어 과를 졸업하고 스페인 마드리드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를 지탱해 준 힘은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 후 모교의 교수로 부임했고, 지난 20여 년 동안 박 총장은 《돈키호테》의 진면목과 세르반테스의 문학 세계를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박 총장은 열성적으로 스페인 문학을 연구, 스페인 정부로부터 문화훈장 기사장을 받기도 한 이력의 소유자다. 2005년엔 종전까지 중역본만 있던 《돈키호테》를 국내 최초로 완역해 선보였는데, 이는 1605년 《돈키호테》 발간 400주년을 맞는 해여서 의미가 남달랐다.

'총장 임기 끝난 후 세르반테스 완역해낼 것'

박 총장의 세르반테스에 대한 애정은 돈키호테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에게 아직 낯선 세르반테스의 작품들을 번역 소개하는 일은 물론, 해마다 세르반테스 세계학회에 나가 세르반테스와 관련한 논문을 한두 편씩은 꼬박꼬박 발표하고 있다. 박철 총장은 동양에선 처음으로 2004년 11월 세르반테스 세계학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데도 큰 노

력을 기울인 바 있다.

박 총장이 번역한 세르반테스의 작품은 《세르반테스 모범소설》(전2권, 오늘의책)과 《이혼재판관》(연극과인간)이 있다. 《세르반테스의 모범소설》은 12편의 중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박 총장은 “명실공히 서양 소설의 호시라고 할 만한 작품”이라고 필독을 권한다. 《이혼재판관》은 세르반테스의 희곡작품집으로 8편의 단막극이 수록되어 있다. 사회풍자가 강한 사회성 짙은 작품이며, 이를 통해 세르반테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세르반테스 작품의 완역을 계획하고 있는 박 총장은 “총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모든 작업이 멈춰섰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무사히 임기를 마친 다음 다시금 시작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돈키호테는 순수한 인간 본성을 지닌 '바로 나'

박 총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돈키호테를 알지만 한국 문학과 작가들에게 돈키호테가 진정으로 이해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400년 전에 선보인 이래 인류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돈키호테》와 세르반테스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많은 작가들이 《돈키호테》를 읽고 문학의 꿈을 키웠어요. 거기서 패러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한국 학자들은 아직도 미국과 프랑스, 독일 문학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광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꿈을 포기 하지 않은 영원한 이상주의자임을, 유토피아를 추구한 순수한 인간 본성을 지닌 '바로 나'임을 인식할 때 한국 문학의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그가 기회 있을 때마다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세계 각국과 민족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문학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면모를 발견할 수 없다. 결국 '번역'이라는 작업은 단순히 책 한 권을 특정 언어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옮겨오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 나라와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제대로' 옮겨오기

위해선 우리의 '폐쇄성'을 먼저 해소시켜야 합니다. 세계 각국이 모두 하루길이 되었고, 인터넷으로 세상 어디든 검색볼 수 있는 세상에 '폐쇄성'이 웬 말이나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폐쇄성'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재'죠. 열린 마음으로 배울 것이 있다면 기꺼이 배울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스페인어권에 한국어·한국문화 적극 알리려'

박 총장은 지난 8월 통번역원 개설을 계기로 번역을 점차 학문적 성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인문학은 수많은 주해가 필요한데, 이것은 엄청난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역자주와 주해를 학문적 성과로 인정하는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는 “우리 대학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번역을 학문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그가 한 사람의 학자로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지금은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다. 바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스페인어는 물론이요, “수많은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목적은 세계의 것을 우리 것으로 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것을 세계에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이다. 스페인어를 배웠다면 스페인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국말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일꾼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와 한국학 그리고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을 세계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21세기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추구해야 할 목표도 바로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 문학을 다양한 언어로 알리는 일에 본교 출신 인재들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취재_장동석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